

“공감과 사유의 첫 번째 접촉” : 「컴벌랜드의 늙은 거지」의 스토이주의

박 찬 길

하지만 이보다 더 고요한 공감들도 있다.
아마도 비슷한 태생이겠지만
사색적인 마음에 슬며시 들어와
생각과 함께 자라난다.
(「무너진 오두막」 MS. D 79-82)
(Wordsworth, *The Ruined Cottage* 49-51)

1. 워즈워스의 ‘비정함’과 늙은 거지의 ‘쓸모’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의 「컴벌랜드의 늙은 거지」(“Old Cumberland Beggar”)¹⁾는 그의 작품세계에서 가지는 위상이 매우 특이하다. 「늙은 거지」의 기원은 1795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Moorman 313) 1796년 중반부터 1797년 중반 사이에 「어떤 거지에 대한 소묘」(“Description of a Beggar”)라는 원고로 처음 작성되었으며 1798년 초에 와서야 더 확장된 현재의 형태로 완성되었다(Wordsworth, *Lyrical Ballads* xxiii).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 출판된

1) 이하 「늙은 거지」로 줄여서 지칭함. 「늙은 거지」와 그 이전의 형태인 「여행하는 노인」(“Old Man Travelling”) 그리고 『서정담시집』에 실린 모든 시의 인용은 버틀러(James Butler)가 편집한 Wordsworth, *Lyrical Ballads*에 의함.

『서정담시집』(*Lyrical Ballads*) 초판에는 이 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여행하는 노인」(“Old Man Travelling”)으로 실렸다가, 1801년에 출판된 두 번째 판본에 와서야 비로소 그 모습을 제대로 드러낸다. 「늙은 거지」는 나중에 「여자유랑인」(“Female Vagrant”)으로 출판되는 일련의 『솔즈브리 평원 시편』(*Salisbury Plain Poems*)²⁾이나 「무너진 오두막」(*The Ruined Cottage*)처럼 전쟁의 와중에서 가족의 해체와 기근으로 고통을 겪는 빈민층을 동정적(同情的)으로 다룬 작품들 중 하나다. 「늙은 거지」는 워즈워스가 여전히 스스로를 시인보다는 공화주의자 개혁가로 생각하고 있었던 시기에 창작하기 시작한 인도주의적 사회저항시(a poem of social protest)인데,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무너진 오두막」 원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한 평가를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가령 동시대 인물이었던 램(Charles Lamb)은 “그 시의 교훈이 너무 직접적이고 강의록 같다”(the instructions conveyed in it are too direct and like a lecture)며 평가절하했고(Woof 100), 현대의 비평가인 심슨(David Simpson)은 이 시에 대해서 “당혹스러움과 분개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나타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Few, however, have failed to register some measure of embarrassment or outrage, 162)고 할 정도였다. 「늙은 거지」에 대한 독자들의 ‘홀대’에는 이 시에서 워즈워스의 정치적 주장이 매우 생경하게 제시되었다는 것도 작용했겠지만, 그보다는 이 시가 출판된 1801년의 시점에서는 이미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 어떤 경향, 이제는 우리가 워즈워스 시의 ‘본류’라고 간주하게 된 어떤 새로운 시적 경향과 이 시가 잘 맞지 않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늙은 거지」보다 몇 달 늦게 작성되었지만 이미 『서정담시집』 초판본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틴턴 사원」(“Tintern Abbey”)은 함께 실려 있던 대다수의 빈민시(the poetry of the poor)(Mayo 495-97)들과는 완전히 다른 명상적 분위기를 현저하게 드러냈었고, 전쟁으로 파탄을 맞은 빈민의 고단한 삶을 다루면서도 「늙은 거지」와는 매우 다른 자세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줬던 「무너진 오두막」은 이 당시 시인의 관심사가 이미

2) 떠돌이 여인을 다룬 습작 「솔즈브리 평원」(“Salisbury Plain”)(1793-94)과 이것을 개작한 「솔즈브리 평원에서의 모험」(“Adventures on Salisbury Plain”)(1795)의 원고를 길(Stephen Gill)이 모아서 편집한 Wordsworth, *The Salisbury Plain Poems* 참조.

『서곡』(*The Prelude*)과 『은둔자』(*The Recluse*)로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Johnston 3-78). 말하자면 1801년 1월에야 출판된 두 번째 『서정담시집』에서 비로소 등장한 「늪은 거지」의 면면은 우리가 아는 『서곡』보다는 『서정담시집』 이전 습작기의 산물인 『솔즈브리 평원 시편』을 훨씬 더 많이 연상시킨다는 것이다(Pinion 42).

「늪은 거지」의 이러한 ‘시대착오적’ 성격과는 별도로 시인의 정치적 주장 자체에 대한 불만도 물론 있었다. 워즈워스가 이 시에서 주장하는 바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개인적 자선(private charity)의 옹호다. 이것은 그 당시 수상이었던 피트(William Pitt the Younger)가 발의했던 구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 개정안은 기존의 빈민구호방식을 이른바 “노동의 집”(workhouse)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 말하자면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undeserving poor)를 집단수용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구호를 그들의 노동과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Hammond 145-52). 연구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 이에 반대하는 것은 일종의 대세였고(그래서 그 법안이 철회되기도 했고), 또 워즈워스처럼 개인적 자선의 상대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입장도 드물지 않았다(Koch 19-21). 그런데 워즈워스의 문제는 그 개인적 자선의 인도주의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자선행위의 대상인 거지 자신을 자선과 구호의 아름다운 연결고리에서 완전히 소외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걷는다. 외로운 사람이다.
 그의 나이에는 동반자가 없다. 땅 쪽으로
 그의 두 눈이 향한다. 그가 움직이면서
 그의 눈도 땅을 보며 함께 움직인다 . . . 언제나
 한 조각 작은 땅땀기가
 그가 보는 전부다.

He travels on, a solitary Man,
 His age has no companion. On the ground
 His eyes are turned, and, as he moves along,

They move along the ground; and, evermore,
 . . . one little span of earth
 Is all his prospect.
 (“Old Cumberland Beggar” 44-47, 50-51)³⁾

사실 노인의 이러한 고립은 이 시의 전신인 「여행하는 노인」의 부제가 “동물적인 고요함과 퇴화”(Animal Tranquillity and Decay)라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그렇게 새로운 일은 아니다. 워즈워스는 조금 나중에 나온 「결의와 독립」(“Resolution and Independence”)에서 “거머리 잡이”(leech gatherer) 노인을 바위 비슷한 존재로 묘사했듯이 여기에서도 거지 노인을 거의 동물적 상태에 접근한 존재로 묘사한다. 이것은 시인이 이 거지 노인을 바라보는 방식이 보통사람들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간단히 말해서 시인은 이 노인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통상적으로 자선행위에 수반되는 공감과 배려가 별로 없다. 코울리지(Samuel Taylor Coleridge)도 지적했듯, 워즈워스는 시종일관 관찰자의 자리를 고수하며(King 45), 그런 의미에서 비정(非情, pitiless)하다. 시인 자신이 「늙은 거지」의 모두(冒頭)에서 이러한 종류의 거지들이 곧 “멸종”(extinct)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Wordsworth, *Lyrical Ballads* 228) 시인은 노인을 동료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자연물처럼 취급한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정책적 논쟁의 맥락에서 워즈워스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입장은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다는 점이다.

자연의 시선(視線)속에 살아온 것처럼
 자연의 시선 속에 죽게 하라.

As in the eye of Nature he has liv'd
 So in the eye of Nature let him die.
 (188-89)

3) 이하에는 행수만 표시함.

빈민구호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러한 주장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로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시인의 이러한 ‘제안’을 구빈법폐지론(Abolitionism)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하기도 한다(Harrison 26). 시 본문에도 묘사되듯 거지노인의 상태가 어렵사리 동냥으로 얻어온 음식마저 이리저리 흘려서 본의 아니게 주변의 새들과 나눠먹어야 하는 처지라면(15-21) 이러한 자유방임(laissez-faire)은 시인의 의도와는 달리 그가 가장 반대했던 “정치경제학자들”(political economists), 특히 그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맬더스(Thomas Malthus)같은 사람의 입장에 결과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Chandler, David 3; Harrison 26). 더욱이 워즈워스가 그 당시 인도주의적 교훈시의 수사법으로(Jacobus 184-208) 다음과 같이 ‘직접’ 말했을 때는 그 의도가 더 의심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 사람을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 정치가들이여!
당신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사용하지 못해 안달하면서
늘 손에 든 빗자루로 세상에서 이런 민폐를 쓸어버리려 하지.

But deem not this man useless—Statesmen! ye
Who are so restless in your wisdom, ye
Who have a broom still ready in your hands
To rid the world of nuisances;
(67-70)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록 부정형이긴 하지만 시인이 “쓸모없다”(useless)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이다. 물론 이어지는 대목에서 “자연의 법”(Nature’s law, 73)을 근거로 세상에 쓸데없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어떻게든 선(good)과 연결되어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보다 더 흥미로운 점은 워즈워스가 이러한 원론에 그치지 않고, 늙은 거지의 쓸모를 그 나름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워즈워스가 주장하는 늙은 거지의 쓸모는 대략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노인은 자선에 대한 살아있는 기록이며 이것이 점차 희박해져가는 사람들의 선한 마

음과 자선심을 계속 유지시켜준다는 것이다(79-97). 두 번째는 노인에 대한 자선 행위가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줘서 더 넓은 범위에서 선한 마음을 재생산, 영속화한다는 것이다(97-108). 세 번째는 노인의 비참한 존재는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의 조용한 기록”(a silent monitor, 115)이 되어 상대적인 행복감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111-24). 네 번째는 심지어 “극빈자들”(the abject poor, 135, the poorest of the poor, 140)들에게도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에게 적선할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인간적 자존심과 품격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135-54).

워즈워스가 이렇게 ‘쓸모’(use)같은 공리주의자들의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벤담(Jeremy Bentham)이나 맬더스 같은 공리주의자들의 논리에 타협하거나 말려들어가는 것은 물론 아니다. 공리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쓸모’ 혹은 ‘효용’(utility)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는 것인데 반해, 워즈워스가 주장하는 쓸모는 대부분 거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일련의 정신적 가치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거지의 존재로부터 비롯되는 이러한 정신적 가치들조차도 자선을 행하는 마을사람들에게만 독점되고, 정작 거지 당사자는 그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후세의 학자들이 「늙은 거지」에 나타난 시인의 입장을 놓고 “거지[의 처지]에 대한 무감각”(this insensitivity toward the beggar, King 45)을 지적하거나 “거지 자신의 감정을 참고하거나 짐작해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the absence of any reference to, or any attempt to divine, the feelings of the beggar himself, Jarvis 210)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노인에 대한 워즈워스의 비정함을 원망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빈자들끼리만 서로 돕는 ‘빈곤의 문화’를 옹호하고 있다거나(Harrison 33), 아무것도 없는 노인의 존재를 그보다 조금 나은 빈민들의 정신적 재활을 위해 약탈적으로 이용한다고까지 비판한다(Jarvis 212). 뿐만 아니라 워즈워스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자선행위를 옹호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현존하는 사회적 계급구조를 보존하고 영속화하는 반동적인 이념으로 귀착했다는 가혹한 평가를 받기도 한다(Koch 29).

2. 「늪은 거지」의 자연과 “한 생명철학”

심슨은 「늪은 거지」에 대해서 대다수의 독자들이 “당혹감”을 느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162) 「늪은 거지」를 읽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 블룸(Harold Bloom)은 노인을 “워즈워스가 그렸던 최고의 원형적 자연인”(Wordsworth’s finest vision of the irreducible natural man, 178)이라고 규정했고, 브로미치(David Bromwich)에게도 「늪은 거지」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모습”(an image of human existence, 23)을 제공해 주는 작품이었다. 블룸이나 브로미치가 노인에게서 발견한 것은 현실 속에 존재하는 가장 ‘자연적인’ 인간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자연적인 인간은 현실 속의 인간들보다는 자연세계의 존재들과 더 쉽게 교감한다. 노인은 현실 사회 속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연 속의] 모든 형태의 존재들과 불가분하게 연결된 생명과 영혼”(A life and soul to every mode of being / Inseparably link’d, 78-79)의 예(例)로서 제시되어있었다는 것이다. 블룸과 브로미치는 각각 다른 근거를 가지고 「늪은 거지」의 문학적 성취를 주장하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한 것은 시인이 제시한 정치적 주장의 ‘내용’이 아니라 노인의 존재양태와 자연세계와의 연관성이었다. 노인은 인간의 공동체에서는 절대적으로 소외되었지만 자연의 공동체와는 절대적으로 결합한 존재로 그려진다는 것이다. 블룸과 브로미치는 「늪은 거지」 원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 생경한 정치적 주장들 자체는 뒷전에 묻어둔 채 여전히 『서곡』과 『은둔자』의 저자 워즈워스의 ‘시’로서, 더 구체적으로는 불과 몇 개월 이후에 완성된 「틴턴 사원」과의 연관성 속에서 해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 즉 이 시의 정치경제적 내용보다 그 이면에 깔린 자연관을 워즈워스의 자서전-철학시 프로젝트와의 연관성 속에서 부각시키려는 경향은 전통적인 워즈워스 연구 속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⁴⁾

4) 가령 「늪은 거지」의 노인과 「틴턴 사원」의 도로씨(Dorothy)를 비교하는 조나단 워즈워스(Jonathan Wordsworth)의 다음과 같은 언급도 그 예다. “거지는 워즈워스의 말로 하자면 고통을 겪지 않는다. 그의 삶이 현대의 독자들에게 매력적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들판을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은 “인가받은”[chartered]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 노인의 머리에 축복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틴턴 사원」의

이러한 연구자들은 이런 맥락에서 1797년 말 코울리지가 전해주었다는 이른바 “한 생명철학”(One-Life Philosophy)을 거론하기 마련이다. 「늪은 거지」를 현재의 상태로 완성한 시기가 1798년 2월 전후이고 바로 이 시기가 “한 생명철학”의 영향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행상인』(*The Pedlar*)이 작성되었기 때문이다(Wordsworth, Jonathan 184). 조나단 워즈워스는 워즈워스 연구에 이 “한 생명철학”이라는 말을 도입한 장본인인데, 그에 의하면 코울리지는 하틀리(David Hartley), 버클리(George Berkeley), 프리스틀리(Joseph Priestley), 그리고 독일의 신비주의 신학자였던 뵘머(Jakob Böhme)의 사상을 기반으로 일종의 “신비주의적 범신론”(mystical pantheism, Stallknecht 35)인 “한 생명철학”을 만들었다고 한다(Wordsworth, Jonathan 189). 조나단 워즈워스에 의하면 자연세계의 삼라만상이 모두 하나의 정신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이 믿음의 체계를 코울리지가 먼저 완성했고, 이것을 1797년 6월부터 워즈워스에게 전수해줬다. 워즈워스는 이것을 바탕으로, 『서곡』, 『유람』(*The Excursion*) 같은 ‘철학시’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195-201). 코울리지가 전해주었다는 이 “한 생명철학”의 내용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은 1795년 8월부터 1796년 4월 사이에 작성된 「이올리언 하프」(“The Aeolian Harp”)의 한 구절이다.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이
 다양하게 만들어진 악기들에 불과하다면 어떨까?
 하나의 무한하고, 지성이 있는 바람의 숨결이
 그 악기들을 스쳐 지나가고 그 떨림에 생각이 빚어지는 것이라면?
 모두 다른 높이에 적절하게 걸린 채
 희미하게 중얼거리거나 장엄하게 터져 나오는 소리로
 창조의 거대한 허락으로 이루어진 조화 속에서
 날카로운 불협화음과 가장 달콤한 멜로디를 [함께] 연주한다—
 그렇게 신은 보편적인 영혼이 되고,

마지막에서 ‘축축한 산바람이 그대를 향해 마음껏 불게 하라’고 했을 때 자기 누이가 고통을 느끼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처럼, 워즈워스는 노인에게도 고통이 느껴지길 바라지 않았다”(146).

자연의 하프들이 물질에 동력을 불어넣으면
그 하나 하나가 자기의 곡조가 되며 . . .

And what if All of animated Life
Be but as Instruments diversely fram'd
That tremble into thought, while thro' them breathes
One infinite and intellectual Breeze?
And all in different Heights so aptly hung,
That Murmurs indistinct and Bursts sublime,
Shrill Discords and most soothing Melodies,
Harmonious from Creation's vast concert—
Thus **God** would be the universal Soul,
Mechaniz'd matter as th'organic harps
And each one's Tunes be that . . .

(Coleridge's emphasis, a fragment of August 1795/April 1796,
Wordsworth, Jonathan 191)

이것을 이어받았다는 「틴틴 사원」의 구절은 다음과 같다.

. . . 그리고 나는 고양된 생각들이 가져다주는 환희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존재를 느꼈다.
훨씬 더 깊게 확산되어있는 어떤 것에 대한 장엄한 느낌,
그것이 사는 곳은 지는 해에서 쏟아지는 낙조,
그리고 광활한 바다와 살아있는 대기,
그리고 푸른 하늘,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이다.
그것은 움직임이고, 하나의 정신이며,
생각을 하는 모든 존재들, 모든 생각의 모든 대상들을 추동하고
모든 것들을 통해 굴러간다.

. . . and I have felt
A presence that disturbs me with the joy

Of elevated thoughts; a sense sublime
 Of something far more deeply interfused,
 Whose dwelling is the light of setting suns,
 And the round ocean and the living air,
 And the blue sky, and in the mind of man:
 A motion and a spirit, that impels
 All thinking things, all objects of all thought,
 And rolls through all things.
 (“Tintern Abbey” 93-102)

만일 이것이 「늪은 거지」를 관통하는 세계이라면, 즉 자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긴밀하게 연관되어있고, 어떤 하나의 원칙 아래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면, 블룸과 브로미치가 노인에게서 발견했던 자연적 인간은 더 이상 인간사회로부터 고립·소외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독자들도 「늪은 거지」에 나타나는 워즈워스의 ‘비정함’에 더 이상 서운해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읽기에서는 「늪은 거지」에서 전개되는 워즈워스의 좀 ‘이상한’ 정치적 주장들의 내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 있고, 아마도 그것이 이 시가 전통적인 워즈워스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덜 언급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늪은 거지」의 해석에 있어서 심슨과 코흐 같은 역사주의 계열의 학자들이 개인적 자선에 대한 시인의 옹호가 당대의 역사적 맥락에서 갖는 현실적 의미를 규명하는데 전념했다면, 블룸을 비롯한 전통적 학계에서는 자연적 인간으로 묘사된 노인에게서 「무너진 오두막」의 “행상인”처럼 자연의 지혜를 체득한 철학적 화자의 맹아를 발견하고자 했다(Johnston 42).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워즈워스가 노인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자선의 의미를 시 본문 전체를 통해 온전하게 해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아쉬움은 「무너진 오두막」을 “한 생명철학”의 맥락에서 분석한 울머(Ulmer)도 가지고 있었다. 자연의 모든 존재의 상호연결성을 말하는 「늪은 거지」의 74-79행⁵⁾을 인용한 후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5) 본 논문 45-46면 참조

이 부분이 “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가? 내 생각으로는 “자연의 법”에 의해 선포된 (자연 속의) 포괄적인 조화에 대한 워즈워스의 묘사는 명료하고도 강력하게 범신론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가 나중에 “하늘의 자애로운 법”을 언급했을 때, 그의 독자들은 아마도 그것을 기독교적인 신을 지칭하는 관습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위에서 인용된 이 구절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모든 생명, 즉 떨어지는 가장 작은 제비 한 마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에 다 도덕적 계획이 있다는 전통적인 믿음들과 그것들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섭리의 보편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봐야한다.

Do these lines demonstrate a faith in the One life? I suggest that Wordsworth's description of the comprehensive harmony decreed by "nature's law" is not clearly or powerfully pantheistic. His later reference to "the benignant law of Heaven" his readers would probably have taken as a conventional allusion to the Christian God. Just so, the lines quoted above describe a providential universality common to traditional beliefs that life-down to the least sparrow's fall-manifested a moral design. (310)

요컨대 “한 생명철학”을 연상시키는 구절이기는 하나 그보다는 기독교적 섭리에 대한 전통적인 믿음에 가깝다는 것이다. 울머가 이런 판단을 한 것은 「늪은 저지」에서 위에 인용된 구절을 제외하고는 딱히 “한 생명”과 직접 연관시킬 만한 구절이 없다는 것, 그리고 시의 나머지 부분들에서 철저하게 18세기의 교훈적 화법으로 당대의 정치적 쟁점들에 관해 얘기한다는 것 때문인 것 같다. 그렇다면 블룸과 브로미치가 말했던 ‘자연적’ 인간의 개념이 소위 “한 생명철학”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한 생명철학”의 설명범위가 제한적이라면 그것을 넘어서 이 시의 본문 전체를 좀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워즈워스의 도덕관을 연구한 포케이(Adam Potkay)는 “한 생명철학”의 연원을 조나단 워즈워스의 경우보다 훨씬 더 먼 곳에서 찾는다.

이러한 “한 생명” 혹은 살아있는 모든 것에 깃들어 있는 세계영혼은 위즈워스가 고대 스토아철학에서 상속받은 개념이다. . . . 위즈워스의 “한 생명”에 대한 인식은 우리를 그의 도덕철학으로 안내한다. 왜냐하면 고대 스토아철학자와 마찬가지로 위즈워스에게 윤리학은 자연에 대한 형이상학적 이해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위즈워스에게도 윤리적 믿음은 우리라는 자연[본질]⁶⁾에서, 현재의 우리라는 존재, 혹은 우리라는 자연[본질]이 제대로 발전되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미래의 존재에서 비롯된다. 우리라는 자연[본질]은 우주 전체의 자연[본질]에 참여한다. 우주 전체의 자연[본질]에는 하나의 정신 혹은 신이 깃들어있고, 이것은 신 혹은 자연이라고 지칭될 수 있을 것이다. 크게 보면 이러한 원칙들은 위즈워스가 고대 스토아철학자들과 공유한 것들이고, 그가 키케로(Cicero)와 세네카(Seneca)를 통해 배운 스토아철학의 원칙들이다.

This ‘one life’ or world soul that interfuses all living things is a concept that Wordsworth inherits from ancient Stoic philosophy . . . Wordsworth’s sense of the ‘one life’ brings us to his meta-ethics because, for Wordsworth, as for the ancient Stoic, ethics are grounded in a metaphysical understanding of nature. For Wordsworth, ethical beliefs derive from our nature, from the kind of beings we are or would be if our natures were properly developed. Our nature, in turn, participates in the nature of the cosmos as a whole, which is infused with one spirit or deity, which might be called either God or Nature. These tenets are, broadly speaking, ones Wordsworth shared with ancient Stoics, and the Stoic doctrines he knew through Cicero and Seneca. (*Wordsworth’s Ethical Thinking*, 681)

사실 위즈워스의 주저작인 『서곡』과 『은둔자』의 철학적 기반을 코올리지가 제공한 철학적 레시피(recipe) 이외에서 찾는다는 것은 위즈워스 연구에서 매우 이례적이었고, 심지어 이단적인 일이기도 했다.⁷⁾ 하지만 최근에는 위에 인용된 뜻

6) 영어의 nature는 자연을 뜻하기도 하고 어떤 것의 ‘본질’을 뜻하기도 한다. 스토아철학에서 그 둘 다를 동시에 의미한다.

케이 뿐만 아니라 콜(John Cole), 그레이버(Bruce Graver) 같은 학자들이 워즈워스 시의 철학적 기반, 특히 그의 도덕론과 관련하여 스토아철학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스토아철학은 기독교의 교리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만큼 서양철학의 확고한 기반중 하나다. 따라서 코울리지가 17-18세기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한 생명철학”을 만들어 워즈워스에게 전수했다는 것과 워즈워스가 청소년기부터 접했던 키케로와 세네카의 영향을 받아 “한 생명철학”과 같은 개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반드시 모순적인 얘기일 필요는 없다. 코울리지에게 영향을 준 철학자들의 이면에는 스토아철학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며, 사실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들 중 다수가 스토아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Sellars 135-57). 이제 문제는 워즈워스의 시와 그 철학적 배경을 해석하는데 스토아철학이 합당한 답일 수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워즈워스의 시를 새롭게 읽는데 스토아철학이 무엇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 생명철학”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스토아철학이라는 풋케이의 주장에서 출발하여, 스토아철학의 몇몇 기본 개념들이 「늙은 거지」에 들어있는 개인적 자선의 의미, 즉 워즈워스가 제시한 그 ‘이상한’ 제안의 ‘내용’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서정담시집』에 포함된 시이면서도 1798년의 작품목록에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한 「늙은 거지」와 나머지 주저(主著)들과의 연관관계를 새롭게 규명함으로써 워즈워스 시의 작품목록에서 「늙은 거지」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그 시적 성취를 재평가하려는 것이다.

3. 노인의 ‘고립’과 그 “아름다움”

「늙은 거지」의 주인공인 노인의 사회적 존재를 당대의 구빈법적 분류에 따라 표현한다면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게으른 빈민”(the idle poor)이면서 동시

7) 스토아철학을 워즈워스의 사상적 연원중 하나로 지목한 워싱턴(Jane Worthington), 로버츠(Mark Roberts)의 연구내용과 그것이 주류 워즈워스 연구에서 갖는 의미는 필자의 줄고 「『무너진 오두막』의 “더 고요한 공감”: 스토아적 엘레지를 위한 시론」, 289-94 참조.

에 “몸이 성하지 않은 빈민”(the disabled poor)이며 따라서 “자격 없는 빈민”(the undeserving poor)에 속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Ehrenpreis 3-35). 구빈법을 개혁하려는 “정치가들”의 관점에서 빈민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노동력의 보유 혹은 사용 여부였고, 따라서 구빈법 개혁과 노동의 집 논의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집단은 노인과 반대편 극단에 있는 “자격 있는 빈민”(the deserving poor), 즉 “성실한 빈민”(the industrious poor), “몸이성한 빈민”(the able-bodied poor)에 집중되어 있었다(Nicholls 1-21). 여기 나오는 노인은 무엇보다 노령으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원칙대로라면 교구의 공식적인 구호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교구 담당자와 그런 일을 직접 협상할 만큼의 사회성도 남아있지 않았다. 영국의 전통적인 구빈법에서 이루어진 노인 구호를 연구한 보텔로(L.A. Botelho)는 그 당시의 노인이 교구로부터 공식적인 구호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식적인 구호를 얻어내는 능력은 단순히 그 필요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정도의 차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행동들 중 일부 혹은 전부와 관련되기도 했다. 교구부속실 직원 관심 끌기, 동정심 이끌어내기, 옛 정에 호소하기, 오랫동안 남부럽지 않게 노동에 종사해 왔다는 식으로 자신의 장점 부각하기, 시도 때도 없이 술집에 드나드는 것 같은 자신의 나쁜 버릇을 고치겠다고 약속하기.

The ability to collect formal assistance was determined by more than simple need. It also depended, in varying degrees, upon any or all of the following: catching the vestry's attention; eliciting sympathy; playing on old loyalties; emphasizing one's good points, such as long, proud years of labour; or promising to amend one's bad ways, such as an ongoing familiarity with the alehouse. (Botelho 22)

하지만 「늙은 거지」의 노인은 이런 언변이나 사교성은커녕 일상적인 의사소통도 어려울 정도로 절대적인 고립상태였다.

그는 앉아서 음식을 혼자 먹었다.
 어쩌다 그의 마비된 손에서 빵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어떻게든 그런 낭비를 막아보려 했지만
 언제나 실패했고, 그 부스러기들은 작은 소나기처럼
 땅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작은 산새들은
 결국 그들 차지가 될 식량이지만 단박에 쫓아 먹을 용기는 아직 못 내고
 노인의 지팡이 길이의 반쯤 되는 곳까지 접근했다.

He sat, and ate his food in solitude:
 And ever, scattered from his palsied hand,
 That, still attempting to prevent the waste,
 Was baffled still, the crumbs in little showers
 Fell on the ground, and the small mountain birds,
 Not venturing yet to peck their destined meal,
 Approached within the length of half his staff.
 (15-21)

노인의 모습에서 “자연적 인간”(Natural Man, Bloom 173)을 발견했던 블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장면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 장면은 너무 사실 그대로이고 동시에 그 사실이 그 자체로 하나의 변모(transfiguration)⁸⁾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 이 노인은 자기의 상태 그대로 있다. 그리고 그는 급진적으로 순수하다. “사람이 없는 거친 언덕들”(14)은 그의 고독을 더 완전하게 할 뿐이다. 그도 언덕들과 같은 종류의 한 현상이다. 그래서 그는 언덕들만큼이나 비감상적(非感傷的)으로 묘사된다. 심지어 그의 처지는 불쌍하지도 않다. 그는 불쌍해지기엔 너무 깊이, 가능한

8) 누가복음 9장 28-36절에 등장하는 일화로서 예수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했던 일을 지칭한다, 여기에서는 노인의 존재가 “변모”한 예수만큼이나 신성한 존재로 보였다는 뜻이다.

한 최대로, 자연(Nature)에 스며들었지만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원저자 강조)

It is difficult to describe *how* this is beautiful, but we can make a start by observing that it is beautiful both because it is so matter of fact, and because the fact is itself a transfiguration. The Old Man is in his own state, and he is radically innocent. The “wild unpeopled hills” complement his own solitude; he is a phenomenon of their kind. And he is no more sentimentalized than they are. His lot is not even miserable; he is too absorbed into Nature for that, as absorbed as he can be and still retain human identity. (Bloom 179) (Bloom’s own emphasis)

이 설명만 가지고 이 장면의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란 그의 말대로 쉽지 않다. 블룸의 설명은 고독 속에 있는 이 노인이 “순수”하다는 것, 자신의 실존 그 자체로만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연과 일체가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축약한다면 이 노인은 모든 사회적 관계를 거세당한 채 자연 안에 그 일부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블룸과 비슷한 대목에 주목했던 브로미치도 이 시에서 노인이 보여주는 것은 “소외된 대상, 황폐해진 자연의 한 조각, 거의 동물의 상태로 환원된 어떤 인간적인 것”(an alien object-a ruined piece of nature, something human reduced to an almost animal state)(30)이라고 말했다. 블룸과 브로미치는 똑같이 노인이 어떤 원형적인 인간, 자연에 가장 가까워진 인간임을 말하고 있다. 이 노인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졌던 모든 사회적 관계를 벗어버리고, 그에게 소박한 음식을 나눠준 마을 사람들보다 “사람이 없는 거친 언덕”이나 그의 식량을 뺏어먹는 “작은 산새들”과 더 친화감을 느낄 만큼 원시적 자연인으로 돌아간 상태다. 앞서 인용한 일련의 비평가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가 거지에 대한 위즈워스의 비정함과 냉혹함을 지적했다. 엄격하게 빈민구호라는 맥락에서만 보자면 이 대목은 구호의 실패, 적어도 극도의 비효율성의 보여주는 장면이다. 노인은 빵부스러기를 흘리면서 그 주변의 산새들에게 식량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즈워스가 거지

의 “쓸모”에 대해서 주장했을 때, 현실의 눈을 가진 비평가들은 위즈워스의 태도에서 심지어 계급적인 약탈성까지 읽어냈다(Jarvis 212). 현대적인 인도주의적 감성으로만 보자면, 이런 노인은 공공으로 운영하는 요양원으로 당장 이송해야 할 텐데, 위즈워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산새들에게도 식량을 뺏기는 거지를 그냥 “자연의 시선 속에 죽게 하라”(189)니, 이 시에 대한 심슨의 “당혹감”과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블룸은(납득시키기 “어려운 일”이라고 자인하면서도) 거지에게 “변모”라는 종교적인 어휘를 적용함으로써 그를 신성한 존재로 부각하는가 하면, “불쌍하지도 않다”며 그를 통상적인 동정과 공감의 대상에서도 배제해버린다. 인간적으로 “불쌍한” 사람이기엔 너무나 완전하게 자연 속에 몰입된 존재라는 것이다. 위즈워스가 노인에게 비정한 것처럼, 블룸도 그에게 몰인정하다. 그러한 몰인정에도 불구하고 블룸은 어떤 의미에서 이 장면을 “아름답다”고 했을까? 블룸이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하게 시각적 아름다움이나 픽처레스크(picturesque)의 미학이 아니라 일종의 윤리적 아름다움이다. 노인이 “불쌍하지 않다”고 했지만, 그것은 노인을 보고 통상적인 동정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지 노인의 존재와 관련된 모든 도덕적·인간적 의미가 증발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극도로 탈색된 형태이지만 인간적 정체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블룸이 말한 “아름다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브로미치에 따르면, 이 장면의 “아름다움”은 마을사람들의 빈민구호가 갖는 실용적 의미와는 완전히 무관하게, 그 거지가 “[자연의] 모든 존재양식과 불가분하게 연결된 삶과 영혼”(78-79)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설명이 좀 “어려운 얘기로 보일 수 있고, 아마도 정확한 생각이 아닐 수도”(seem a difficult or perhaps an imprecise idea) 있지만 위즈워스의 의도는 정확하다는 것이다(33). 블룸과 브로미치가 논리적인 설명에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시 본문에 입각해서 애써서 해명하고자 했던 부분은 어떤 특별한 ‘자연’의 의미인데, 여기에 스토아철학의 개념을 도입하면 그 의미를 훨씬 더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다.

스토아철학에서는 이 세상이 하나의 자연, 하나의 우주다.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삼라만상은 모두 자연의 일부이다. 스토아철학은 기본적으로 일원론자

(monist)이고, 물질과 정신의 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자연은 아주 작은 입자로 구성된 물질이며, 이 물질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합되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을 구성한다(Cole 572-73). 그리고 이러한 자연은 하나의 원칙에 의해 구동되며, 그 원칙을 신이라고도 하고, 능동적 원칙(Active principle)⁹⁾이라고도 하며, 때로는 제우스(Zeus)라고 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은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스토아철학에서 자연은 절대적인 합리성이 관철되는 세계다. 자연의 법칙은 바로 그 합리성의 발현이며, 그것에 순응하는 것은 선이고, 그에 반하는 것은 악이다. 따라서 인간의 삶에서 도덕적 선이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사는 것이다. 이러한 스토아철학의 세계관을 디오게네스(Diogenes Laertius)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노(Zeno)는 자신의 책 『인간의 본질에 관하여』에서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이 [삶의] 목표(telos)이며, 그것이 곧 미덕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제일 먼저 말했다. 왜냐하면 자연이 우리를 미덕으로 이끄니까. . . . 크리시푸스(Chrysippus)가 『목적에 관하여』 1권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자연[본질]은 전체의 자연[본질]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은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며,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자연[본질]이자 전체의 자연[본질]에 따라 사는 것이고, 보편적인 법이 금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보편적인 법이란 모든 것에 깃들어

9) 스토아의 물리학에서는 자연이 “능동적 원칙”과 “수동적 원칙”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본다. “능동적 원칙”은 이성(reason, 그리스어로 *logos*)와 동일시되며 때때로 “신,” “제우스,” “지성,” “운명,” “섭리,” “법” 등 다양하게 불린다. “능동적 원칙”은 “수동적 원칙”과 함께 우주를 구성한다. 이 두 가지가 섞이는 과정을 “숨결”(breath, 그리스어로 *pneuma*)이 물질에 스며드는 것으로 설명한다. 말하자면 “능동적 숨결”이 다양한 조합으로 “수동적 물질”이 스며들어 다양한 자연적 존재를 만드는 것이다(Brouwer 24). 이러한 개념들이 낭만주의 시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앞서 인용한 코올리지의 「이올리언 하프」의 한 구절 “하나의 무한하고, 지성이 있는 바람의 숨결”이라는 표현도 그 예이고(본 논문 34-35면 참조), 셸리(Percy Bysshe Shelley)의 「서풍에게 바치는 송가」(“Ode to the West Wind”)도 마찬가지다. 워즈워스가 독일에 있었던 1798년 10월 6일에서 12월 28일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미완성원고 “모든 것에는 살아있는 능동적 원칙이 있다”(There is an active principle alive in all things)는 시인이 스토아철학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다(Wordsworth, *Lyrical Ballads* 309).

있는 올바른 이성이며 이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통치자 제우스와 동격이다. 행복한 사람의 미덕, 그의 도덕적인 삶의 과정은 모든 일을 언제나 전체 관리자의 뜻에 따라, 각 개인의 수호천사의 정신에 의거하여 행하는 것이다.

Therefore Zeno in his book *On the nature of man* was the first to say that living in agreement with nature is the end(*telos*) which is living in accordance with virtue. For nature leads us to virtue. . . . as Chrysippus says in *On ends* book I: for our natures are part of the nature of the whole. Therefore, living in agreement with nature comes to be the end, which is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oneself and that of the whole, engaging in no activity wont to be forbidden by the universal law, which is the right reason pervading everything and identical to Zeus, who is the director of the administration of existing things. And the virtue of the happy man and his good flow of life are just this: always doing everything on the basis of the concordance of each man's guardian spirit with the will of the administrator of the whole. (Diogenes, *Compendium of the Lives and Opinions of Philosophers* 7.87-8) (Mitsis 258)

이러한 스토아철학의 자연관을 토대로 울머가 인용했던 「늪은 거지」 73-79행을 다시 읽어보면 그 스토아적 연관성이 보다 분명하게 느껴진다.

. . .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 어떤 것도, 가장 미천한 피조물일지라도,
 가장 흉악하고 야만적인 모습을 가진 것들도
 가장 우둔하거나 가장 해로운 것도
 선(善)과 무관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선의 정신과 맥박, 그 생명과 영혼은
 모든 형태의 존재들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있다.

. . . 'Tis Nature's law

That none, the meanest of created things,
Of forms created the most vile and brute,
The dullest or most noxious, should exist
Divorced from good—a spirit and pulse of good,
A life and soul to every mode of being
Inseparably linked.

(73-79)

어차피 울머는 그 연관성을 낮게 보긴 했지만, 위에서 인용한 “한 생명철학”을 원용하더라도 여기서 표현된 “자연의 법”의 의미를 어느 정도까지 짐작할 수는 있다. 자연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관되어있고, 각각 그 나름의 도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생명철학”은 스토아철학처럼 그 도덕적 의미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는다. 스토아의 정신으로 노인을 바라보면, 마을사람들로부터의 고립은 그들로부터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가려져있던 자신의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실현한 것이고, 자연 속의 합리성(Rationality)을 실현한 것이다. 거지가 실현한 자신의 본질[자연]은 “작은 산새”나 그를 둘러싼 “거친 언덕”의 본질[자연]과 같은 것이며, 블룸이 설명하려고 애썼던 “아름다움”은 그 본질[자연]의 합리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노인이 자기 나름으로 전체의 본질이 가진 합리성, 즉 자연의 합리성을 구현하고 있는 한, 위즈워스 혹은 그의 시적 화자가 그것을 어떤 감정으로 바라보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스토아철학에서 감정은 자연의 합리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을 막는 장애요소이며 철학적 명상으로 치료해야 할 질병일 뿐이다(Sellars 117). 마찬가지로 노인과 “작은 산새들”이 각각 나름의 방식으로 자연의 합리성을 실현하고 있다면, 그 둘 사이에 어떤 종류의 소통이 이루어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도덕적 선과 아름다움은 오로지 각각의 개체가 자연의 합리성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개체들끼리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토아철학에서는 자연 속의 개체들이 서로에 대해 갖는 전형적인 자세는 무심하고 비정하다. 노인에 대한 위즈워스의 ‘비정함’은 스토아철학의 맥

락에서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애당초 도덕적 가치와 무관하다. 18세기말의 빈민구호 담론에서 빈민에 대한 공감(sympathy)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Fiering 195-218), 위즈워스는 바로 그러한 공감의 결핍으로 비난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스토아철학에서의 공감은 어떤 상대방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나 감정이 아니라 자연의 합리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에서 온다. 너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어떤 공통의 자연적 본질은 근본적으로 세상 모든 대상의 본질과 동일하며, 그것들을 깨닫는 순간 스토아적 공감(stoic sympathy)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에서 스토아적 공감은 “우주적 공감”(cosmic sympathy, Brouwer 27)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앞에서 말한 자연의 합리성에 대한 인식과 다르지 않다. 위즈워스가 노인의 명백한 현실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비정한’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작은 산새들”과 무의식적으로 식량을 나눠먹는 노인의 모습에서 “모든 존재양식과 불가분하게 연결된 삶과 영혼”을 발견했기 때문이고, 블룸과 브로미치가 논리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 장면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노인과 “작은 산새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보여준 “우주적 공감”을 그들도 간파했기 때문이었다.

4. 노인과 자선의 ‘버릇’

노인과 “작은 산새들”이 시의 초반부에서 “우주적 공감”을 보여줬다고 해도, 그런 의미에서 거지의 고립이 마을사람들의 정신적 만족을 위한 일방적인 ‘희생’이 아닐 수 있다고 해도, 노인의 “쓸모”에 관해 위즈워스가 제시했던 주장들이 이 시의 도덕적 전망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마을 사람들의 자선행위는 “작은 산새들”에 대한 노인의 ‘자선행위’가 무의식적인 만큼이나 일방적이고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의미 역시 스토아적 도덕적 전망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위즈워스가 주장하는 노인의 “쓸모”는 인도주의적 맥락에서 노인의 실질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맥락에서나 노동 학교를 통해 구빈세(the poor rate)를 최소화하려는 “정치가들”의 이해관계에서

나 하나의 현실적인 정책제안으로서는 실효성이 없다. 하지만 위즈워스가 진짜 말하려는 것은 실현가능한 복지제도나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마을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실현되는 어떤 도덕적 가치다.

농장들과 외딴 오두막들
 부락들과 띄엄띄엄 흩어진 마을들,
 그 어디라도 나이든 거지가 한 바퀴 순회하면,
 [마을사람들은] 관습에 의해 은근히 느껴지는 필요성에 따라
 사랑의 행위들로 인도된다. 그리고 버릇이
 이성의 일을 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성이 소중히 여기는 그 뒤이은 기쁨을 준비한다.
 쾌락의 달콤한 맛을 일부러 추구하는 것이 아닌데도
 영혼은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게
 미덕과 참된 선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Among the farms and solitary huts,
 Hamlets and thinly-scattered villages,
 Where'er the aged beggar takes his rounds,
 The mild necessity of use compels
 To acts of love; and habit does the work
 Of reason; yet prepares that after joy
 Which reason cherishes. And thus the soul,
 But that sweet taste of pleasure unpursued,
 Doth find itself insensibly disposed
 To virtue and true goodness.

(88-97)

마을 사람들은 늘 일정한 시간이 되면 마을을 순회하는 노인에게 특별한 애정이나 동정심을 느껴서가 아니라 “관습에 의해 은근히 느껴지는 필요성에 따라” 자선을 베푼다. 미리 알고 한 일은 아니지만, 마을 사람들이 무심코 한 그

자선행위가 사실은 그들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이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며, 그 결과 “이성”이 그 뜻을 이루었을 때만 허락하는 어떤 “뒤이은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관습”과 “버릇”의 도덕적인 의미도, 그 모든 것을 관할하는 “이성”의 존재와 역할도 전혀 모르지만, 자선행위 이후에 느껴지는 막연한 만족감, 그 “뒤이은 기쁨”을 통해서 뒤늦게 자신들의 행위가 도덕적 선이었음을 짐작하게 된다. 하지만 오로지 “관습”에 의한 무의식적 행동이 도덕적 선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의 도덕적 가치는 무엇이며, 어떻게 결정하는가? 위즈워스의 설명에 따르자면, 마을 사람들의 그 “관습”과 “버릇”은 외면적으로는 노인의 존재에 기인한 것이지만, 그 노인의 어떤 특정한 성격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일정한 시간에 마을을 순회하는 거지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브로미치의 말을 빌면,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가 요구하는 바”(That he is, is his claim, 32)이지 노인의 신원이 특별하거나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서 마을 사람들이 자선에 나서는 것이 아니다. 노인이 “작은 산새들”에 대해 특별한 동정심이나 공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처럼 마을 사람들도 그 거지의 처지를 특별하게 동정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오랫동안 반복된 행동에서 나오는 “관습”과 “버릇”일 뿐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 마을 사람들도 위즈워스만큼이나 거지에 대해 ‘비정’하다. 노인과 “작은 산새들” 사이에서 그랬듯이, 마을 사람들과 노인 사이에서 자선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들 간의 어떤 특별한 정서적 유대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각각 그들의 본성 안에 원래 있던 착한 마음, 위즈워스의 말을 빌자면 “이성”이 추인하는 어떤 본질이 있기 때문이다. 블룸은 노인을 “자연인”(Natural Man, 173), 즉 “자연 안에서 완벽하게 온전한 사람”(a Man perfectly complete in Nature, 181)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의 자선행위가 “뒤이은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착한 마음이 노인이 가진 어떤 자연의 본질과 상통하는 것이라는 뜻 아니겠는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스토아철학의 도덕적인 선은 자연의 합리성으로부터 나온다. 어떤 행동이 그 합리성에 부합하면 선이고 어긋나면 악이다. 그 부합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 이른바 “오이카이오시스”(oikeiōsis)¹⁰이다. 위즈워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 키케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이카이오시스의 첫 번째 행동은 한 개인의 자연적인 본질에 맞게 스스로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자연에 따르는 것들은 유지하고, 자연에 어긋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택과 거절의 원칙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오이카이오시스의 원칙에 따라 그 조건이 정해지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는 그런 선택들이 확립된 버릇이 된다.** 그리고 결국 선택은 완전히 합리적인 것이 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 제대로 된 선이 처음 나타나고 그 진정한 본질로 이해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지막 단계에서다. (『의무론』 3: 5-6)(필자 강조)

the first appropriate act is to preserve oneself in one's natural constitution; the next is to retain those things which are in accordance with nature and to repel those that are contrary; then when this principle of choice and also rejection has been discovered, there follows next in order choice conditioned by appropriate action; **then, such choices become a fixed habit**; and finally, choice fully rationalized and in harmony with nature. it is at this final stage that Good properly so called first emerges and comes to be understood in its true nature. (*De Finibus* iii 5-6) (Mitsis 261) (My Emphasis)

키케로의 설명에 의하면 “오이카이오시스”의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쌓여 “버릇”이 되고, 그 “버릇”에 의한 행동은 당연히 그 “오이카이오시스”의 원칙에 의해 도덕적 의미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위즈워스가 “버릇이 이성의 일을 한다”(92-93)고 말한 것은 바로 그런 뜻이다. 마을 사람들이 노인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은 자연의 뜻을 “오이카이오시스”하는 “버릇”에 의한 것이지 그를 “동정”하기 때문이 아니다. 동정과 공감은 자선행위를 매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을

10) 그리스어 ‘오이카이오시스’(oikeiōsis)라는 개념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것을 자신에게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히에로클레스(Hierocles)에 의하면 ‘오이카이오시스’에 부합하는 행동은 자연의 합리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행동이며, 인간의 이성이 발달할수록 ‘오이카이오시스’적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점점 더 “자연에 따라” 살 수 있게 된다(Sellars 120). 우리말로 적절한 번역어가 없으므로 oikeiōsis를 그대로 ‘오이카이오시스’로 옮겼다. 자세한 내용은 Engberg-Pedersen 참조

사람들과 노인의 관계는 노인과 “작은 산새들”의 관계와 닮았다. 요컨대 그들은 모두 스토아적 자선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풋케이는 동정이 배제된 자선행위의 스토아적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또한 동정 혹은 구호에 대한 사의(謝意)는 없앨 수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호의나 선물로 도움이나 생계지원을 해줄 때는 사의, 즉 고마워하는 마음을 그 대가로 기대한다. 그것은 사실상 하나의 의무와 빛이 된다. 하지만 생계지원을 그 사람에게 당연하게 따르는 권리로 재인식하면 고마움을 느끼거나 표현해야하는 의무 혹은 상호적으로 뭐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 . . . 로마의 스토아철학은 지원의 제공을 어떤 의무를 지우는 순환적 과정, 즉 고마움이나 봉사를 그 대가로 기대하는 과정이 아니라 선한 행동 자체로 종료되는 직선적인 개념으로 재정립하는 첫 걸음을 떴다. 라이트하트(Leithart)는 세네카의 『혜택론』(*De Beneficiis*)의 핵심적 주장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선물은 그냥 선물로서 주어져야 한다. 심지어 배은망덕한 사람에게도, 왜냐하면 미덕은—이 경우는 너그러움이라는 미덕—그 자체가 보상이기 때문이다. [혜택을] 주는 사람들은 너그러운 신들을 닮아야 한다.

Eliminable, too, is gratitude for pity or for alms. When a poor person...is offered assistance or sustenance as a favor or gift, then gratitude is expected in return: it becomes, in effect, an obligation, a debt. But if assistance is reconceived as something due to the person as a right then the obligation to feel or express gratitude, or to render reciprocal service, is eliminated. . . . Roman Stoicism took an early step in reconceiving the giving of assistance not as obliging and circular—that is, in expectation of a return of gratitude or service—but as linear, ending in the good of the act itself. Leithart points out a key argument of Seneca’s *De Beneficiis*: “Gifts ought to be given for their own sake, even to the ungrateful, because virtue—in this case, the virtue of generosity—is its own reward. Givers ought to imitate the generous gods.” (Potkay, “Contested Emotions” 1334)

딱히 스토아철학과 연관시키지는 않았지만 브로미치 역시 마을 사람들의 “버릇”에 대한 이 대목을 이 시의 “가장 별난 특징”(a most unusual feature, 38)으로 꼽았다.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마을 사람들과 노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공감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위즈워스 당대에 가장 일반적인 공감이론이었던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이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를 인용하면서 그 안에는 공여자와 수혜자 사이의 공감적 상호관계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음을 환기한다. 스미스의 공감이론에 따르면 자선의 주체는 동정심을 느껴서 자선을 베풀고 그 대가로 객체로부터 고마워하는 마음을 당연히 기대한다는 것이다(39-40). 브로미치는 「늙은 거지」에서는 이러한 스미스적 공감이 현저하게 배제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위즈워스는 “이러한 타산적이고 상업적인 도덕”(this prudent commercial morality)를 혐오했다고 단언한다(40). 위즈워스는 매우 의도적으로 인간적 감정이 완전히 제거된 자선행위를 제시하고, 그것을 마을 사람들의 “습관”과 “버릇”으로 간주함으로써 빈민구호에서조차 노인을 어떤 거래의 수단으로 취급하는 “정치가들”의 공리주의적 셈법을 근본적으로 비판했다는 것이다. 브로미치는 이런 의미에서 노인의 “쓸모”에 대한 위즈워스의 ‘공리주의적’ 수사법이 오히려 공리주의의 핵심을 공격하는 “설득력 있는 웅변”(a work of persuasive eloquence 42)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5. 노인의 도덕적 영향력: “공감과 사유의 부드러운 첫 번째 접촉”

위즈워스는 노인의 절대적인 ‘고립’을 묘사하며, 그러한 ‘고립’의 조건에서도 “작은 산새들”에 대한 개인적인 자선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마을 사람들의 착한 “버릇”이 노인에 대한 특별한 동정심 없이도 같은 종류의 자선행위를 유도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시인은 “작은 산새들”과 자신의 소박한 먹거리를 본의 아니게 나눠먹는 장면의 “아름다움”이나 정해진 시간에 마을을 순회하는 노인에게 습관적으로 음식을 적선한 후 느끼는 “뒤이은 기쁨”을 묘사함으로써 그러한 행위들이 본인들의 인식너머에 별도로 존재하는 어떤

윤리적인 목적을 부지불식간에 성취했음을 암시했다. 위즈워스가 짐짓 공리주의자들의 용어를 빌어 주장했던 저지의 “쓸모”의 핵심은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윤리적 의미였고 그 실현이 주는 정신적 행복감이었다. 이러한 행복감은 기본적으로 한 개인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주관적인 경험이지만 오랫동안 여러 개인들의 반복된 행동을 통해 “관습”과 “버릇”으로 축적되면, 그 과정에서 일종의 사회적 경험으로 확대된다. 위즈워스가 말했던 노인의 “쓸모” 중 또 하나의 항목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경험과 관련이 있다.

그들[마을 사람들]의 이런 착한 일들을 보고
 영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고결하고 사색적인 정신의 소유자이며,
 기쁨과 행복을 빚어내는 사람들로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고,
 퍼져나가며, 불씨를 살린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어린 시절, 바로 이 외로운 존재,
 이 불쌍한 방랑자에게 우연치 않게 얻은 것,
 (그 모든 책들이나 사랑의 갈망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은 그 공감과 사유의 첫 번째 부드러운 접촉이었다.
 그들이 결핍과 슬픔으로 채워진 이 세상에 친밀감을 느끼게 된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였다.

. . . Some there are,
 By their good works exalted, lofty minds
 And meditative, authors of delight
 And happiness, which to the end of time
 Will live, and spread, and kindle; minds like these,
 In childhood, from this solitary being,
 This helpless wanderer, have perchance received
 (A thing more precious far than all that books

Or the solitudes of love can do!)
 That first mild touch of sympathy and thought,
 In which they found their kindred with a world
 Where want and sorrow were.
 (97-108)

이 대목에서 워즈워스가 말한 “쓸모”의 수혜자는 거지 자신이나, 자선을 직접 베푼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자선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일상적으로 보면서 자라온 목격자들이다. 인용문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대목을 보면 그러한 어린 목격자들에게 노인의 존재는 “조용한 기록”(a silent monitor, 115)과 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노인의 가난하고 신산(辛酸)한 삶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덜 가난하고 덜 고생스러운 자기들의 삶을 “스스로 축하”(thought of self-congratulation, 117)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상대적인 만족감과 행복감을 즐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인용문에서 워즈워스가 설명한 ‘혜택’은 그렇게 비겁하고 이기적인 만족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보다 근본적인 깨달음 혹은 도덕적인 성장이다. 자선의 목격자들 중 일부는 그 소박한 자선의 현장을 보면서 “결핍과 슬픔으로 채워진 세상”을 처음으로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 공감과 사유의 첫 번째 부드러운 접촉”을 경험하게 된다. 어린 시절에 주어지는 이러한 경험은 그 이후 온갖 책이나 인생경험이 가져다주는 지식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며, 바로 그것에 힘입어 “고결하고 사색적인 정신의 소유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기쁨과 행복을 빚어내는 사람들”로서 이들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은 작은 자선의 현장을 훨씬 넘어 광범위한 인류사회로 뻗어나가며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역사의 끝까지 영속적으로 지속된다. 워즈워스가 말한 “쓸모”는 이 대목에서 단순히 주변 사람들이나 심지어 당대의 영국사회에 대한 기여가 아니라 인류 사회 전체, 혹은 인류의 역사 전체에 대한 공헌으로까지 확장된다.¹¹⁾ 노인에 대한 소박한 적선이 전인류적 혜택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

11) 스토아철학에서는 개인의 ‘오이카이오시스’가 사회의 ‘오이카이오시스’로 확대되는데, 이것을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예가 히에로클레스(Hierocles)의 동심원의 비유다. 자연의 합리성을 깨닫는 과정이 한 개인의 가장 이기적인 생존욕구에서 출발한다면, 그것

는 것은, 그것을 목격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고결하고 사색적인 정신”을 키워낸 어떤 개인들의 도덕적인 성장에 힘입은 것이며, 그 최초의 계기가 바로 “그 공감과 사유의 첫 번째 부드러운 접촉”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노인의 존재가 결과적으로 그런 기여를 한 셈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마치 “작은 산새들”에게 음식을 나눠준 것이 의도가 아니었듯이 그의 의도나 인식과는 전혀 무관한 일종의 나비효과 덕분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우연을 근거로 거지라는 존재의 “쓸모”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종류의 “공감”(106)과 “사유”(106)가 그런 도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인가? 이에 대해 브로미치는 “우리가 때때로 ‘자연’이라고 부르는 우연적 사건들의 운명적인 연속”(chance, or the fateful succession of accidents we sometimes call “nature” 38)이라는 알쏭달쏭한 대답을 내놓는다. 그것은 아마도 워즈워스가 훗날 1850년 『서곡』 8권의 제목에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끄는 자연에 대한 사랑”(Love of Nature leading to Love of Man, Maxwell 296)이라고 했을 때 그가 말한 대문자로 된 자연(Nature)를 지칭하려고 했던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의 혼란스러운 형용모순의 수사법은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도 앞에서 인용했던 스토아적 개념을 원용한다면, 브로미치가 말한 “자연”의 의미를 훨씬 더 수월하게 구체화할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스토아철학에서 윤리적인 삶이란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이다. 자연은 이른바 “능동적 원칙”이라는 하나의 원리가 모든 현상을 지배하면서 완벽한 합리성이 구현되는 세계다. 어떤 행동이 그러한 합리성에 부합하면 선이고, 어긋나면 악이다. 따라서 어떤 행동의 선악을 판단하려면 그것이 자연의 합리성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자연에 따라 살 수 있고, 자연의 합리성을 실현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다. 인간은 태

이 동심원의 중심이고, 그 중심에 있는 개인은 여러 개의 동심원으로 둘러싸여있다는 것이다. 중심에 가장 가까운 동심원이 가족, 그 다음 동심원이 친척, 그 다음이 친구, 이렇게 동심원이 커져 가면 가장 먼 동심원의 끝은 우주 그 자체가 된다. 사회적 ‘오이카이오시스’는 이러한 동심원의 바깥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과정이며, 스토아철학의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은 이러한 사회적 ‘오이카이오시스’에 근거한 것이다 (Kitchener 17).

어날 때부터 자연의 합리성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의 단초는 가지고 있으나 (Cole 574) 그것을 완전하게 실현하려면 일정한 정신적 성장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앞서 언급한 스토아철학의 ‘오이카이오시스’(oikeiōsis)라는 개념이다. 이것은 어떤 행동이 자연의 합리성에 합당한지 판단하고 스스로를 그쪽으로 유도하는 정신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Mitsis 261). 이 개념은 영어로는 통상 appropriate, 즉 ‘전유(專有)하다’로 번역되는 동사의 명사형인데, 어원적으로는 “어떤 것에 속함”(belonging to one), “같이 있음”(togetherness), “동질감”(affinity towards), “애정”(endearment), “관심”(concern for), “호의를 가짐”(well-disposed)과 같은 뜻과 연관된다고 한다(Kitchener 11). 이런 다양한 단어들의 조합을 바탕으로 유추해보자면, ‘오이카이오시스’는 어떤 것을 자기에게 속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자기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확보해나가는 과정을 뜻한다(Seller 107). 스토아철학에 따르면 인간은 원래 거의 동물과 같은 상태에서 출발한다. 동물과 같은 수준인 유아가 발휘하는 ‘오이카이오시스’란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것, 즉 자연 안의 생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 보존본능 밖에 없다(Mitsis 261). 하지만,

아이가 일단 이성적인 능력을 개발하면, 오이카이오시스의 과정이 더 복잡해진다. 충동들이 여전히 나타나지만, 그것을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일은 더 이상 없다. 인간은 충동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성적 능력을 사용하게 된다. 이것을 스토아철학의 용어로 동의(同意) 혹은 부동의(不同意)라고 한다. 스토아철학자들에 따르면 결국 모든 인간은 세상을 지배하는 능동적 원칙의 과정에 부합하는 충동들에 동의하게 된다는 것이다.

Once the child develops a rational faculty, the process of appropriation becomes more complicated. The impulses will still present themselves, but can no longer be processed automatically: human beings will have to use their rational faculties in order to decide what to do with them, that is-in Stoic terminology-to assent to them or not. Again, according

to the Stoics, all human beings should in the end assent to those impulses that are in line with the course of the active principle that governs the world. (Brouwer, 34)

스토아철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성장이란 결국 자연의 합리성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말한다(Kitchener 8-16). 인간은 “오이카이오시스”의 고도화를 통해 “부동의”하는 행동은 자제하고 “동의”하는 행동을 실천하며, 점차 자연의 합리성을 완전히 이해하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며 완벽한 행복과 즐거움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워즈워스가 말한 “그 공감과 사유의 첫 번째 부드러운 접촉”을 스토아적으로 말해본다면 어린 아이는 마을 사람들의 자선행위를 보면서 처음으로 자연의 존재, 혹은 그 섭리에 대해 “사유”하게 되고 그것에 “공감”한다. 이때 아이의 “사유”가 점차 “오이카이오시스”의 과정에 따라 아이의 이성을 발전시키며, 그 아이는 그 과정에서 자연의 섭리와 더 적극적으로 “공감”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공감”은 마을 사람이나 노인처럼 주위의 사람들로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자연을 지배하는 어떤 근본적인 질서, 스토아철학의 용어로 “능동적 원칙”을 지향한다. 그런 면에서 워즈워스의 “공감”은 인간적 공감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스토아적 공감, 즉 “우주적 공감”(Brouwer 27)이라고 할 수 있다. 워즈워스는 “사유”와 “공감”을 통해 “오이카이오시스”를 실천해나가는 사람을 “고결하고 사색적인 정신”의 소유자라고 불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계기를 노인이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노인에 대한 자선행위의 의미를 자기도 모르게 “사유”하면서 그것에 깃들어있는 자연의 “능동적 원칙”과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향후 이러한 어린 아이가 “고결하고 사색적인 정신”의 소유자로 성장하는 과정이 완전히 우연이거나 자의적인 나비효과가 아닌 이유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능동적 원칙”이 자연의 합리성을 언제나 완벽하게 실현하기 때문이다.

6. 요약과 결론

워즈워스의 「늪은 거지」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1798년 1월에서 3월 사이였지만, 출판된 것은 거의 3년 후인 1801년 1월 25일 경이었다(Pinion 42). 출판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시는 워즈워스 연구자들에게 주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 시는 그 스타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틴턴 사원」이나 『서곡』의 철학적 명상 보다는 『솔즈브리 평원 시편들』과 같은 인도주의적 교훈시를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심슨을 비롯한 역사주의적 학자들은 이 시에 대해 “당혹감”을 나타냈는데, 그 주된 이유는 개인적 자선을 옹호하는 워즈워스의 주장에 자선의 대상인 거지에 대한 인간적 배려와 공감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한편 블룸을 포함한 일련의 주류 워즈워스 연구자들은 워즈워스의 정치적 주장보다는 자연과 완벽하게 결합된 인물로서의 노인의 모습에 주목했고, 거기에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끌어 내는 『서곡』의 자연과 「무너진 오두막」의 철학적 화자 “행상인”(the pedlar)의 전조(前兆)를 봤다. 역사주의자들의 읽기가 워즈워스의 정치적 메시지에 편향되었다면, 전통주의자들의 읽기는 노인의 형상화 방식에만 집중했다는 점에서 양쪽 모두 시 본문 전체에 대한 통일적이고 포괄적인 해석을 제시했다고 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노인과 결합된 ‘자연’의 이념이 그 인물의 시적 형상화에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늪은 거지」의 ‘본론,’ 즉 워즈워스의 정치적 주장 자체에도 들어있다고 본다. 전통주의자들은 「늪은 거지」의 ‘자연’을 설명하기 위해 코올리지가 고안했다는 “한 생명철학”을 그 이념적 근거로 들지만, 이 글에서는 워즈워스가 청소년기부터 읽었던 스토아철학을 그 이념적 출처로 제시한다. 스토아철학의 자연은 세계 혹은 우주와 동격이다. 스토아학파는 이 자연이 하나의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라고 본다. 자연 안의 모든 형태의 존재들은 기본적으로 동질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부분과 부분 간에, 부분과 전체 간에 ‘공감’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 안에 아무리 미미한 존재라도 다른 존재들과 공감할 수 있고, 동시에 자연 전체와도 공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스토아적 공감은 ‘우주적’ 공감이다.

워즈워스가 「늪은 거지」에서 묘사하는 자선행위는 자선의 공여자와 수혜자 사이에 인간적 공감의 부재라는 이유로 비난받아왔다. 하지만 스토아적 관점으로 본다면 그 모든 ‘비정한’ 존재들 사이의 자선행위에는 ‘우주적 공감,’ 즉 자연의 “능동적 원칙”에 대한 공감이 들어있다. 완벽하게 고립된 노인이 본의 아니게 “작은 산새들”에게 베푸는 작은 자선에도 스토아적 공감이 작용하고 있고, 특별한 동정심 없이도 노인을 구호하는 마을 사람들의 “버릇”도 자연의 합리성에 대한 ‘공감’의 결과다. 그렇게 관습이 된 자선행위를 간접체험한 사람들조차 작은 자선행위에서 시작된 ‘우주적 공감’을 통해 “고결하고 사색적인 정신”으로 성장한다.

「늪은 거지」에 대한 이러한 스토아적 읽기가 심슨의 ‘당혹감’과 블룸의 미학적 즐거움 사이에 존재하는 해석의 격차를 완전히 메울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스토아적 개념을 통하여 우리는 「늪은 거지」에 담겨있는 생경한 정치적 메시지 속에서도 ‘우주적 공감’의 작동을 발견했고, 이 맥락에서는 「늪은 거지」의 노인이 몇 달 후에 작성된 「틴턴 사원」의 내면적 성찰 및 도덕적 성장의 담론과 그렇게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노인의 존재를 통하여 「틴턴 사원」의 철학적 명상의 출발점에는 빈민구호와 같은 현실적 문제에 대한 개혁가 워즈워스의 고민이 여전히 놓여있었음도 재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늪은 거지」가 두 번째 판 『서정담시집』에 ‘뒤늦게’ 포함되어 「틴턴 사원」과 같은 시와 나란히 목차를 장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덜 이상한 일일 수 있다. 「늪은 거지」는 그 완성의 시점이 암시하는 것처럼 워즈워스가 『솔즈브리 평원 시편』 이래 실험해왔던 인도주의적 사회저항시의 정점이면서 동시에 자연을 통한 시적 정신의 성장이라는 평생의 과제를 최초로 시작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용 문헌

- 박찬길. 「『무너진 오두막』의 “더 고요한 공감”: 스토아적 엘레지를 위한 시론」. 『안과밖』 44 (2018): 266-99, 316-17.
- Bloom, Harold. *The Visionary Company*. Ithaca and New York and London: Cornell UP, 1971.
- Botelho, L. A. *Old Age and the English Poor Law, 1500-1700*. Woodbridge: Boydell, 2004.
- Bromwich, David. *Disowned by Memory: Wordsworth's Poetry of the 1790s*. Chicago: Chicago UP, 1998.
- Brouwer, René. “Stoic Sympathy.” *Sympathy: A History*. Ed. Eric Schliesser. Oxford: Oxford UP, 2015: 15-35.
- Chandler, David. “Wordsworth Versus Malthus: The Political Context(s) of ‘the Old Cumberland Beggar’.” *The Charles Lamb Bulletin* 115 (July 2001): 1-14.
- Chandler, James. “Sensibility, Sympathy and Sentiment.” *William Wordsworth in Context*. Ed. Andrew Bennett. Cambridge: Cambridge UP, 2015: 161-70.
- Cole, John. “Wordsworth and Classical Humanism.” *The Oxford Handbook of William Wordsworth*. Ed. Richard Gravil and Daniel Robinson. Oxford: Oxford UP, 2015: 563-80.
- Engberg-Pedersen, Troels. *The Stoic Theory of Oikeiosis: Moral Development and Social Interaction in Early Stoic Philosophy*. Aarhus: Aarhus UP, 1991.
- Ehrenpreis, Irvin. “Poverty and Poetry: Representation of the Poor in Augustan Literature.” *The Modernity of the Eighteenth Century*. Ed. Louis T. Milic. Cleveland and London: Case Western Reserve UP, 1971: 3-35.
- Fiering, Norman S. “Irresistible Compassion: An Aspect of Eighteenth-Century Sympathy and Humanitarianism.”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37.2 (April-June 1976): 195-218.

- Furley, David. *Routledge History of Philosophy Volume II: Aristotle to Augustin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9.
- Graver, Bruce. “Wordsworth and the Stoics.” *Romans and Romantics*. Ed. Timothy Saunders, et al. Oxford: Oxford UP, 2012: 145-60.
- Gill, Stephen. *William Wordsworth, A Life*. Oxford: Clarendon, 1989.
- Hammond, J. L., Hammond, Barbara Bradby. *The Village Labourer, 1760-1832*. London: Longmans, Green, 1912.
- Harrison, Gary. “Wordsworth’s ‘the Old Cumberland Beggar’: The Economy of Charity in Late Eighteenth-Century Britain.” *Criticism: A Quarterly for Literature and the Arts* 30 (Winter 1988): 23-42.
- Inwood, Brad. *Stoic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P, 2018.
- Jacobus, Mary. *Tradition and Experiment in Wordsworth’s Lyrical Ballads (1798)*. Oxford: Clarendon, 1976.
- Jarvis, Robin. “Wordsworth and the Use of Charity.” *Beyond Romanticism: New Approaches to Texts and Contexts 1780-1832*. Ed. Stephen Copley and John Whal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2: 200-17.
- Johnston, Kenneth R. *Wordsworth and The Recluse*. New Haven: Yale UP, 1984.
- King, Joshua. “‘the Old Cumberland Beggar’: Form and Frustrated Sympathy.” *The Wordsworth Circle* 41.1 (Winter 2010): 45-52.
- Kitchener, Richard F. “The Stoic Theory of Moral Development.” Web. 20 Jan. 2020. <https://www.academia.edu/11428199/The_Stoic_Theory_of_Moral_Development>.
- Koch, Mark. “Utilitarian and Reactionary Arguments for Almsgiving in Wordsworth’s ‘the Old Cumberland Beggar’.” *Eighteenth-Century Life* 13 (November 1989): 18-33.
- Mayo, Robert. “The Contemporaneity of the Lyrical Ballads.” *PMLA* 69.3 (June 1954): 486-522.

- Mitsis, Phillip. "Stoicism." *The Blackwell Guide to Ancient Philosophy*. Ed. Christopher John Shields. New York: John Wiley, 2008: 253-67.
- Moorman, Mary. *William Wordsworth A Biography: The Early Years 1770-1803*. London, Oxford, and New York: Oxford UP, 1968.
- Nicholls, George. *A History of the English Poor Law: Volume III*.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7.
- Pinion, F. B. *A Wordsworth Chronology*. London: Macmillan, 1988.
- Potkay, Adam. "Wordsworth's Ethical Thinking." *The Oxford Handbook of William Wordsworth*. Ed. Richard Gravil and Daniel Robinson. Oxford: Oxford UP, 2015: 679-92.
- _____. *Wordsworth's Ethics*. Baltimore: Johns Hopkins UP, 2012.
- _____. "Contested Emotions: Pity and Gratitude from the Stoics to Swift and Wordsworth." *Publications of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130.5 (2015): 1332-46.
- Richey, William. "The Rhetoric of Sympathy in Smith and Wordsworth." *European Romantic Review* 13 (2002): 427-43. Web. 20 Jan. 2020. <<http://dx.doi.org/10.1080/10509580214655>>.
- Roberts, Mark. *The Tradition of Romantic Morality*. London: Macmillan, 1973.
- Sellars, John. *Stoicism*. Durham: Acumen, 2010.
- Simpson, David. *Wordsworth's Historical Imagination: The Poetry of Displacement*. New York and London: Methuen, 1987.
- Stallknecht, Newton Phelps. *Strange Seas of Thought*. Bloomington: Indiana UP, 1958.
- Ulmer, William A. "Wordsworth, the One Life, and the Ruined Cottage." *Studies in Philology* 93.3 (1996): 304-31.
- Woof, Robert. *William Wordsworth: The Critical Heiritage. Vol. I: 1793-1820*.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1.
- Wordsworth, Jonathan. *The Music of Humanity*. London: Nelson, 1969.

- Wordsworth, William. *Lyrical Ballads: And Other Poems: 1797-1800*. Ed. James Butler and Karen Green. Ithaca and London: Cornell UP, 1992.
- _____. *The Ruined Cottage and the Pedlar*. Ed. James Butler. Ithaca, N.Y.: Cornell UP, 1979.
- _____. *The Salisbury Plain Poems: Salisbury Plain, Or A Night on Salisbury Plain : Adventures on Salisbury Plain (Including the Female Vagrant) : Guilt and Sorrow, Or, Incidents upon Salisbury Plain*. Ed. Stephen Gill. Ithaca, N.Y.: Cornell UP, 1975.
- _____. *William Wordsworth: The Prelude, A Parallel Text*. Ed. J. C. Maxwell. Harmondsworth: Penguin, 1982.
- Wordsworth, William, Coleridge, Samuel Taylor. *Lyrical Ballads*. Ed. Michael Mason.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92.
- Worthington, Jane. *Wordsworth's Reading of Roman Prose*. Hamden, CT: Archon, 1970.

“That first mild touch of sympathy and thought”:
Stoicism in Wordsworth’s “Old Cumberland Beggar”

Abstract

Chankil Park

This paper is an attempt to understand Wordsworth’s “Old Cumberland Beggar” with reference to Stoicism. This poem has always been controversial among Wordsworth scholars with its direct comments on the contemporary poor relief system. Historicist scholars did not like the poem because they found no sign of a genuine sympathy for the poor in Wordsworth’s narration of an old vagrant beggar nor any practicable suggestion for his well-being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Some other scholars, on the other hand, appreciated Wordsworth’s characterization of the old man, particularly the aesthetic quality of the old man’s solitude in nature. Their aestheticism was more or less founded upon the “One-Life philosophy” which Coleridge have supposedly invented and gave to Wordsworth in Quantock Hills in 1797-98.

My argument is that “Old Cumberland Beggar” is best understood when it is placed in the context of the Stoicism which Wordsworth was familiar with since his Hawkshead years. The old man’s solitude in Nature, for example, does not imply alienation because he is “stoically” in sympathy with the “mountain birds” with whom he inadvertently shared what he had earned from the village. The village people’s ‘habitual’ charity on the old man does not show any particular emotional attachment to him, which, however,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ir commitments are self-centered. “That after joy” they have after the charity brings about an implicit awareness that their actions were also “stoically” in sympathy with a principle in nature. Stoicism calls it the “Active Principle” pervading the whole nature by which all the apparently unrelated events in the world are made responsive to the Rationality of Nature.

The “first mild touch of sympathy and thought” from the beggar is also instrumental in developing the moral sensibility of many people who have been witnessing the “use” of private charity in the village. The stoic concept of *oikeiōsis*, the process of “appropriating” to one’s own what is in line with the Natural Rationality, is useful too for explaining the wholesome effect of the beggar upon the people who indirectly committed themselves to the charitable actions. This stoic interpretation helps us to understand both the characterization of the old beggar and the poet’s political polemics more consistently within a single unified interpretative space. The stoic reading of “Old Cumberland Beggar” clearly shows that it is not only the finale of his commitments to the humanitarian poetry of social protest, but also the very beginning of the new poetic spirit that he was due to embody in *The Prelude* and *The Excursion* in the following years.

- ▶ 주제어: 워즈워스(Wordsworth), 스토아철학(Stoicism), 공감(Sympathy), 구빈법(The Poor Law), 한 생명철학(One-Life Philosophy), 「컴벌랜드의 늙은 거지」(“Old Cumberland Beggar”)

박찬길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논문 투고 일자: 2020. 02. 28.

심사 완료 일자: 2020. 03. 15.

게재 확정 일자: 2020. 03. 15.